

# 사회복지사는 주민의 비서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명품과 패션을 보는 재미가 있다. 처음부터 여성들이 옷을 입으며 관객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발 중심으로 도시여성의 바쁜 하루의 시작을 강조한다. 기사를 꿈꾸던 앤드리아가 세계최고 패션지의 편집장 비서 면접을 보게 되면서 패션의 문외한이 악마의 비서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던 삶을 되찾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악마(메릴 스트립)의 은빛머리와 당당한 걸음걸이, 나지막하지만 힘이 넘치는 대사는 영화전체의 질을 높여준다. 악마가 출근하면 회사의 모든 게 바쁘게 움직이고 바뀌어버린다. 직원들은 그를 다 피한다. 질문은 절대금지고 두 번 말하지 않는다. 악마가 원하면 비서는 무슨 일이든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이 영화에서처럼 사회복지사는 주민의 비서가 되어야 한다. 때론 악마같은 주민도 있겠지만, 영화에서처럼 편집장으로서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를 이해한다면 진정으로 그들의 비서가 되어야 한다. 주민이 원하는 것에 따라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사회복지사들은 주민의 비서가 되어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앤드리아 비서가 악마의 입모양만 보고도 어떤 기분인지를 알아차린 것처럼 주민의 작은 변화에도 정확히 알아차리고 빨리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악마가 앤드리아를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었던 것처럼 주민이 사회복지사를 인정하게 되면 사회복지사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주민을 위해 노력한다면 앤드리아에게 해리포터 원고를 구해주는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당신을 도와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앤드리아는 처음엔 금방 뜰거니까 자신의 패션 스타일도 바꾸지 않으려 한다. 패션은 나

와 상관없는 일이며 패션에 대해 우습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1년만 버틸 공산으로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한번의 실수로 악마에게 욕먹은 앤드리아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동료는 그에게 징징대기만 했지 뭘 노력했냐고 하면서 때려치라고 한다. 직업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 없고 그들의 노력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선배가 부러우며, 사회복지 현장에도 이렇게 진심의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선배 사회복지사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이 영화의 선배는 앤드리아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골라서 빌려주었는데, 나는 과연 선배 사회복지사로서 후배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힘하게 충고해주는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녀의 용기도 본받을만하다. 그렇게 진심의 충고해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그녀의 판단이 옳았다. 사회복지 후배들이 한번은 이런 선배가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기 바란다. 때론 앤드리아가 선배를 도와준 것처럼 선배가 실수한 부분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도와주면 더욱 좋겠다. 반면에 앤드리아처럼 사회복지현장이

잠시 거쳐가는 곳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실습을 통해 했던 수많은 주민들과의 약속들(실습이 끝나면 다시 복지관에 오겠다, 또 연락하겠다), 논문을 위해 잠시 약간의 선물로 이들의 삶을 훑어간 수많은 설문조사들, 사회복지현장을 잠시 거쳐가서는 사회복지현장에 대해 다 이해한 것처럼 사례를 드는 사회복지전공교육자들에게도 이와같은 충고를 해주고 싶다.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있었으며, 사회복지현장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력,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진심으로 대해주었던 주민들의 따뜻한 마



음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주민들은 더 이상 실습의 대상, 설문조사의 대상, 자신이 원하는 직업의 희생양이어서는 안 된다.

선배의 도움으로 그녀는 이제 비서역

할을 멋지게 해낸다. 살도 빼고 회사내 다양한 명품을 빌려 입는다. 패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수시로 바뀌는 악마와 앤드리아의 명품 옷들은 패션쇼를 보는 듯하다. 사회복지사의 복장은 무엇이어야 할까? 매일매일 새로운 정장과 같은 옷들을 입어야 할까? 물론 주민들을 존중하는 마음은 전달될 것이다. 또한 상담가의 경우는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은 사회복지현장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가끔은 젊은 친구들이 꼭 조이는 정장이나 야한 옷을 입고 와서는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면 답답할 때도 있다. 주민과 함께 노동하며 일하기 위해서는 편한 복장이지만 깔끔한 복장이면 좋겠다. 아니면 작업복을 복지관에 여벌로 준비해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옷에 신경 쓰는 것보다 주민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에 좀 더 신경 쓰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물건을 자기물건인양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는 옳지 않다. 물론 비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합법적이려면 모르겠지만, 선배가 몰래 빌려주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도 가끔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황금보기를 돌같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앤드리아는 인간적인 악마의 모습에 감동을 먹는데다가 편집장이 째린다고 하자 흥분하며 악마를 돕고자 한다. 악마를 따라 움직이겠다고 한 리스트 때문에 회장도 악마에게 손을 들었다. 과연 사회복지사들도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고 있을까? 자신을 따라 움직이겠다고 한 주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본다. 또한 자신의 관장이 째린다고 하였을 때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앤드리아처럼 흥분하고 찾아가서 어떻게든 도울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 영화의 악마처럼



관장자리를 냉정하게 지킬 수 있는 현명한 관장을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다. 또한 앤드리아가 면접 본 회사에 보낸 악마의 말처럼 '내게 가장 큰 실망을 안겨 준 비서다 하지만 채용안 하면 당신은 바보다' 라고 관장이 말해줄 수 있다면

직원들이 아주 멋진 관장으로 기억할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이 좁아서 소문이 나쁘게 나면 사회복지사는 더 이상 사회복지현장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패션이라는 직업에 대해 대중들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영화다. 또한 패션쇼를 통해 패션의 앞날을 보여준다. 사회복지도 앞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대중들도 좋아하는 패션쇼 같은 이벤트 행사는 무엇일까? 사회복지의 유행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시도되어야 한다. 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러한 유행을 만들 수 있는 자리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패션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흥미있게 보았을 영화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흥미를 가지고 보았을 영화는 없을까? 가족과 친구들을 데려가서 함께 영화를 보고 영화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사랑했던 남자의 의해서 여자의 인생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녀의 선택인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일을 그만두고도 다시 만난 악마에게도 웃으며 인사할 수 있는 앤드리아가 행복해보인다. 앤드리아처럼 현명한 사회복지지망생들이여, 사회복지를 당당하게 선택하라. 주민의 비서가 되는 것이다. 선택한 그 일이 자신이 정말로 원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권혁철 춘의종합사회복지관

